



# 병원 인쇄업

## 보건복지부 올해 입법예고, 업계 강력항의

### 대한인쇄문화협회

(주)121-837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2-26 / 전화 : (02)335-5881 / 팩스 : (02)338-9801

문서번호 인월 제04-26호  
 발행일자 2004. 4. 6.  
 수 인 보건복지부 장관  
 참 조 보건 의료정책과 과장

#### 제 목 의료기관의 인쇄업 허용계획에 대한 의견

1.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전력하시느니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부에서는 2004년 3월 26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께 지금까지 금지됐던 의료기관들의 출판·인쇄·의료정보제공업은 별 개정을 통해 활성화시키겠다는 일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인쇄인들은 문화산업의 핵심인 인쇄문화의 발전과 70만 인쇄가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아 래-

인쇄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현재 17,000여 업체가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으나 수년 전부터 몰려다니는 경기침체로 가동률이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종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인쇄업은 인력난과 자금난, 시장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이 심화되어 도산 업체가 속출하고 있고 해외시장에 개방되어 무한경쟁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인쇄는 첨단시설을 갖추고 인력 또한 수년간 숙련된 기술공이 있어야 중용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인쇄업과 무관한 의료기관에서 인쇄업을 영위한다면 인쇄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에도 배치되는 처사입니다. 이번 인쇄업 허용 계획이 의료기관들의 수익 창출에 있다고는 하나 인쇄기계가 고가에 수입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력도 전문 기술공이 다수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의 수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쇄용 국내 인쇄업체에서 생산, 공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하시어 귀 부의 '의료기관의 인쇄업 허용 계획'을 철회해 준 것을 70만 인쇄가족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하오니 신지 바랍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민재기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권득룡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충원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26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병원 등 의료기관들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쇄 및 출판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지금까지 금지됐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도 허용, 병원들의 출판·인쇄·의료정보제공업 등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입법예고를 거쳐 의료기관에서 인쇄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쇄업계에서는 복지부의 방침은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인 인쇄업을 고사시키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인쇄정보조합은 최근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인쇄업 허용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3단체는 건의서에서 "인쇄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현재 1만7천여 업체가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으나 수년 전부터 불어닥친 경기불황으로 가동률이 60%대에 머물고 있으며 인력난과 자금난, 시

# 허용 방침

설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이 심화되어 도산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인쇄는 첨단시설을 갖추고 인력 또한 수년간 숙련된 기능공이 있어야 운용되는 업종이어서 인쇄업과 무관한 의료기관에서 인쇄업을 영위한다면 인쇄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3단체는 이어 "이번 인쇄업 허용 계획이 의료기관들의 수익창출에 있다고는 하나 인쇄기계가 고가에 수입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력도 전문 기능공이 다수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의 수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정책과도 배치된다"면서 "이같은 실정을 감안하시어 귀 부의 '의료기관의 인쇄업 허용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70만 인쇄가족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